

전남도, 전국 첫 999km 요트 길 만든다

도, 요트마린 실크로드 연구용역 중간보고

목포·완도·소호항, 영산강 등 4곳에 조성 올해안에 합평 20척 규모 등 계류장 완공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요트 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항 코스와 항구의 윤곽이 드러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처음으로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의 코스와 허브항 및 경유지를 결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요트길 4개 코스 999km(3개 바닷길 911km, 1개 강길 88km)와 역마리나 30개 항에 대

한 선정 사유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발전 방안을 토의했다.

코스별로 보면 ▲목포항을 허브로 한 아일랜드로드(500km) ▲완도항을 허브로 한 장보고로드(250km) ▲소호항을 축으로 한 엑스포로드(161km) 등 바닷길이 3개다. 유일한 강 코스는 ▲영산강로드(88km)가 나불도와 영산강체육공원 등 2곳을 정착지로 하고 있다. <표참조>

전남도는 앞으로 2차 정밀조사를

명칭	거리(km)	허브항	중간역
아일랜드로드	500	목포	10개항 (통마리, 홀통, 함평, 계마, 우전, 원평, 대흑산도, 거제도, 옥곡)
장보고로드	250	완도	10개항 (화원, 우수영, 진도, 이목, 도청, 마량, 수운, 동음, 비봉)
엑스포로드	161	소호	8개항 (웅천, 경도, 신항, 안도, 남일, 신양, 풍유)
영산강로드	88	나불도	2개항 (황토돛배나루터 경유~영산강 체육공원)

거쳐 4월께 요트가 다닐 노선과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할 항, 개발 규모와 개발 우선순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 포함된 항들은 대부분 방파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유류항이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에선 목포에 57척, 여수 소호에 100척을 계류·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 항이 있고 완도에 9척, 함평에 20척

규모의 계류장이 올해 완공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목포와 여수에 회원제 요트 및 투어회사를 유치해 전남을 동북아시아 요트·마리나 허브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6월 국제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이번에 1차 결과를 내놓았다.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계획은 수심, 개발계획과 주변 여건, 지역민 의견 등을 조사해 2017년까지 30여 유류항만과 영산강에 소규모 마리나 계류시설을 설치해 전남 해상과 강에 요트가 다닐 수 있는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 여수시 콜센터가 나선다

외지인 교통·관광지 문의 대비 직원교육 강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끈 여수시 콜센터가 이번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측면 지원한다.

여수시는 25일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 교통이나 주요관광지에 대한 외지 관광객들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시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는 상담자료를 받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 분야별 가이드 북을 제작하고, 매일 업무시작과 마감 시에 숙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매달 2차례 정기교육과 함께 상담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수시 콜센터는 지난해 초 "여수시 콜센터 그 끝은 감동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전

화민원과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문을 열어상담사 등 9명으로 구성, 전권번호 1899-2012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평일에는 오전 8시30분~오후 6시30분,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쉬는 날 없이 '원 스톱(One-Stop), 원 콜(One-Call)'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민원과 상수도, 교통, 관광, 축제 등 총 19만 4000건에 달하는 상담을 통해 이 가운데 82%를 즉시 처리, 기존 단순 전화 안내에서 민원해결사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시 관계자는 "매일 매일 교육을 통해 상담시에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게 대비하겠다"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효과(win-win)전략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전남농기원 육성 장미 화훼농가 인기

김해 장미평화화... '화이트슈얼리' 등 2종 높은 점수

최근 김해 진례면 도원장미원에서 열리는 국내 육성장미 현장평가회에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화이트슈얼리, 헬린지(사진) 장미 품종이 유통판매업자,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22일 열린 이번 평가회는 농촌진흥청 장미사업단이 주관하고 전남농업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기도원 등 5개 기관 70여 종의 품종이 선을 보였다.

농기원 측은 "이날 장미 재배농가, 유통판매업자, 꽃꽂이단체, 종묘회사, 각종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화훼 담당자 200여 명이 농기원의 새 품종인 '화이트슈얼리'와 '헬린지'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화이트슈얼리'



리' 품종은 꽃이 크고 가시가 적은데다 향기가 좋아 부케용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헬린지' 품종은 병에 강하고 화색이 선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기원은 올 하반기 화훼종묘 보급센터 준공을 앞두고 우량 종묘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내년 부터는 2억4000만원의 로열티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디에스중공업, 다문화여성 모국방문 지원

영암 대불산단단지 내 중견기업인 디에스 중공업(대표이사 김성길)이 25일 오후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10여 명을 초청해 모국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디에스중공업은 지난 2007년 설립된 지역기업으로, 매달 임원과 직원 상호회가 불우한 이웃을 찾아 현금과 생필품을 전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신안군, 올해 2배로 확대

신안군은 올해 농가 경영 안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지난해에 비해 2배 늘릴 방침이다.

군은 25일 "전체 경지면적의 17%(3351ha)를 차지하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올해 6480ha(33%)까지 확대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

료, 녹비작물 종자대 등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에 29억원을 투자,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적은 농지의 토양 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업단지 4800ha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1098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415ha, 새끼우렁이 공급 5426ha,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93개소 등 친환경농업에만 93억원을 직접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중도의 경우 모든 논(5655ha)을 유기농으로 경작하기로 했다.

/신안=이성민기자 sslse@

순창 '육천인재숙' 대학 100% 진학

수료생 35명 전원 서울대 등 합격

순창군 육천인재숙 수료생이 올해 100% 대학 진학으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25일 육천인재숙에 따르면 지난 21일 최종합격자 발표결과 수료생 35명 중 서울대 2명, 연세대 4명, 성균관대 2명을 비롯해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등 수도권에 19명(53%)이 진학했다.

또 전남대 4명, 전북대 4명 등 지방 국립대에도 16명이 합격해 수료생 35명 전원이 합격(정시 11명, 수시 24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해 학생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육천인재숙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고, 체력 보강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설치한 바 있다.

특히 군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진학 상담을 위해 주말을 이용, 서울 유명 강사와 입시전문 컨설팅 등을 실시한 것도 실력 향상에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도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대생 초청 멘토링, 서울대 견학, 인재숙 청사 환경정비, 주말특강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 육천인재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문을 연 육천인재숙은 지금까지 36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

군산 상습 침수피해 지역 4곳 환경부, 하수도정비 집중 지원

중양·금암·경포1·산북 배수분구에 총 445억 투입

군산시 상습 침수피해지역 4개 배수분구(중양·금암·경포1·산북)가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이후,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빗물받이 정비 등을 최우선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방 재원만으로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환경부에 상습 침수

피해지역 4개 배수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지난해 2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해 다른 지역보다 우선 국비를 지원받아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부터 상습

침수피해지역 4개 배수분구에 대해 종합적인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445억원(국비 312억원 지방비 1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빗물펌프장 3개소, 하수저류시설 2개소,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받이 등 설치하면 해당지역의 침수피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로부터 군산시 4개 배수분구 등 전국 10곳 지자체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남원시는 올해 지역 내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33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준단을 예방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로, 영농도우미 1일 6만원 기준으로 세대당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원시 제공)

단신

순창군, 예비귀농인 60여명 공동체 교육

순창군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예비귀농인 60여명을 대상으로 '명랑시대 꿈공이 페스티벌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귀농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두레마을터 김석규, 퍼머컬처 유희정 강사 등을 초빙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으로 구성됐다.

이번은 2번째 모임으로 청년공동체 만들기, 공동의제 등을 만들어 나갈 목적으로, 순창군 화문산수련원에서 실시했다.

군은 다음달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예비 귀농귀촌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환경가족 수기' 대상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가 환경부가 주최한 제1회 환경가족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북부사무소는 25일 "지난해 달궁·덕동야영장에서 추진했던 '야영장 푸드뱅크' 사업을 주제로 한 수기가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야영장 푸드뱅크는 북부사무소가 전국에서는 처

음 시행한 사업으로, 야영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식품을 기부받아 복지시설 등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활성화로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면서 친환경 야영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 공개모집

군산시는 25일 "현재 군산YMCA에서 수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이 오는 6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한다"고 밝혔다.

위탁 대상시설은 군산시 송풍동에 위치한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으로, 주요시설로는 생활관, 대강당,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세미나실, 연회장, 식당, 정보검색실, 극기훈련장 등이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서 재외동포 400여 CEO들 수출상담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회원과 전북 중소기업인들이 만나는 '제1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4월 부안 번산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64개국 6500여명의 재외동포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경제·무역단체다. 오는

4월1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 대회에는 40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새만금의 투자 잠재력을 알리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출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3년째 '낮잠' 학생인권조례

전북 교육단체, 조속 제정 촉구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3년째 표류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그동안 논란을 빚은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아직도 일선 학교는 자의적인 체벌과 응의 복장 단속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조례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 교육위원들은 미로처럼 같은 문제를 부리지 말고 학생

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도교육청이 2년 전 수정한 학생인권조례안과 최근 민주당 장영수 의원이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학생인권조례안 등 2개가 제출돼 있으며, 도의회는 조만간 이들 2개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